

북미회담 교착·아이돌 스캔들... 빛 바랜 신남방정책

동남아 3국 순방 마친 文 대통령

靑, 캄보디아 순방사진 바꿔 게재
北, 비핵화 협상중지 가능성 알려
한류 홍보 중 '정준영' 논란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인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터진 사건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 3국을 돌며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 캄보디아에 발 디딘 文... SNS서 대만 명소 사진 게시한 靑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살펴보면 신남방정책은 꽤 빛을 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들과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해의 진출 기업이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체결 ▲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타결 ▲브루나이와의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LNG 관련 사업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밤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 옥의 티가 나왔다. 옥의 티는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10일~12일)와 말레이시아(12일~14일)를 방문한 후 발 디딘 캄보디아(14일~16일) 순방 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진절할 청와대-대통령의 아세안 3국 세 번째 순방지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 중에는 대만의 명소 국가양청원(종합예술 문화시설) 사진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는 외교국인 캄보디아에 걸레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지적이다.

◆ 순방서 '한반도 비핵화' 강조한 文... '美와의 비핵화 협상 중단' 운운한 北

문 대통령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 순방 때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발언이 북한에서 나왔다.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강대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순방 때 각국 정상들에게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고 했으며, 지난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각각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중재자 역할을 자처, 국제사회와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그랜저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 부상 발언 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최 부상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 정준영 동영상 파문에 짹짹해진 文의 한류 외교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한류 홍보에도 힘썼다. 같은 기간,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류 홍보에 씁쓸한 뒷말을 자아냈다

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슬람 대중문화)이 접목된다면, 더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1일 살레하 브루나이 왕비와의 환담 때 한국 드라마·영화·배우·문화 등을 언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류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파문이 장기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류를 활용한 외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를 활용한 특별한 외교를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족에게 아이돌 '엑소'의 사인이 담긴 CD와 사이니의 '민호'의 축하동영상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우리나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에게도 한류를 활용한 외교력을 뽐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주대한민국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걸스플레이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아이돌 사이니의 민호를 동참시켰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만찬 때 가수 박효신의 축하공연을 미국 정상 내외에게 선사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또 자녀 특혜채용 "정치인들 어떻게 민나"

김성태 딸, KT정규직 과정 특혜의혹 해수부·과기부 장관 후보자 도마위

정계가 또 다시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국민들이 정계를 불신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해에만 수차례 불거졌다.

우선 야당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을 수사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KT 전 임원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논란을 직면해야 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선급(선박검사기관)에 특혜채용됐음을 17일 주장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부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

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 조씨는 1년간 근무했다.

이 업체는 조 후보자가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KAIST와 동원시스템즈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11년 설립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서 3년간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생각해 보니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향후 공과사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도 지난달 불거졌다. 시사저널은 그달 13일 검찰로부터 '2013~2015 신한은행 신입채용 청탁자 명단 관련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경주 민주당 의원과 정우택·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신한은행에 청탁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정무위는 은행권을 감시하는 게 역할이다. 다만 이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우승준 기자

농식품부, FAO 韓 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태호 농식품부장관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해 UN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문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UN 전문기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농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위

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FAO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내 FAO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8월 최종문안에 합의해 12월에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정체결 이후 사무소장 선발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 사무소는 향후 우리나라와 FAO 간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하고, 식량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대한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AO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부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FAO 내 한국인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이낙연, '몽우리들을 찾아서' 사진전 관람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청운동 류가현 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사진전 '몽우리들을 찾아서'를 관람한 후 사진과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총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해외 각지에서 나라를 되찾고 헌신했던 선조들, 그 마지막 장소와 후손들의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 무거운 채무감에 압도됩니다. 신혼집을 팔아 9개국 100여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20개월 동안 다니며 취재하고 촬영하신 김동우 작가의 애국혼을 엿보았습니다"라고 썼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청운동 류가현 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사진전 '몽우리들을 찾아서'를 관람한 후 사진과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총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해외 각지에서 나라를 되찾고 헌신했던 선조들, 그 마지막 장소와 후손들의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 무거운 채무감에 압도됩니다. 신혼집을 팔아 9개국 100여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20개월 동안 다니며 취재하고 촬영하신 김동우 작가의 애국혼을 엿보았습니다"라고 썼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수산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시범운영

해수부, 고등어·갈치 등 6종 대상

정부가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 시스템(http://fish-sugeup.kmi.re.kr)'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들어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산물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등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해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산지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상청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했다.

올해 구축할 2단계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어종에 대표적인 양식수산물 등 5~6개 어종을 추가하고, 더욱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수급 및 물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